

한전, 사우디 신규 원전건설 예비사업자로 선정됐다

한국전력이 1400MW급 2기 규모의 사우디아라비아 신규 원전 건설 예비사업자로 선정됐다.

사우디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사업자를 모집, 한국과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등이 입찰에 참가했다.

사우디는 5개국을 모두 예비사업자로 선정하고 사업조건을 협상하면서 최종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한전은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건설 경험을 앞세워 신규 사업 수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전은 지난해 12월 사우디 측의 요청에 따라 1500쪽에 달하는 입찰정보요청서(RFI)를 냈다. RFI는 발주자가 사업자 선정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후보 사업자에 요청하는 사업 역량 정보 요청서다.

한전은 올 1월 방한한 사우디 평가단을 맞아 한국의 원전 산업 역량과 한국형 원전의 안전성을 충분히 설명하기도 했다. 지난 2월에는 사우디 현지 설명회를 열고 사우디의 요구에 맞는 현지화 방안과 기술 전수, 인력 양성 계획도 제시했다.

이외에 3회에 걸친 원전 산업 로드쇼 개최, 원전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등을 통해 사우디 원자력 유관기관과 긴밀한 신뢰관계를 구축해왔다.

정부도 사우디 원전 수주를 적극 지원해왔다. 지난 5월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우디에

1400MW급 2기 규모... 美·中 등 참가

사업조건 협상통해 최종사업자 선정

1월 방한 평가단에 원전 안전성 설명

현지화 방안과 기술 전수 등도 제시

너지산업광물자원부 장관 접견을 통해 정부의 적극적인 원전 수출 지원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지난 3, 5월 두 차례에 걸쳐 사우디 에너지산업광물자원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전은 “이번 예비사업자 지위 확보는 향후 최종 계약자로 선정될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한전 신사옥.

볼 수 있다. 사우디 신규 원전 건설을 수주하면 UAE원전 이후 9년 만에 해외 원전사업을 수주하는 쾌거이자 중동지역 원전시장의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전은 2009년 우리나라 원전 역사상 처음으로 UAE에 한국형 원전인 APR1400 4기를 수출했다.

오소영 기자 osy@

가스공사, 러시아와 가스 협력 확대

가스관 연결 관련 공동연구 진행

한국가스공사가 러시아와 가스 협력을 확대한다. 가스공사는 러시아 국영가스회사 가스프롬과 가스관 연결과 관련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데 이어 사할린 가스전 프로젝트에서 액화천연가스(LNG) 도입 물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4일 러시아 위성통신 스푸트니크(Sputnik)에 따르면 임중국 가스공사 해외사업본부장은 지난달 25~29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2018 세계가스총회'에서 “가스프롬과 사할린-II 프로젝트에 관한 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격이 합리적이면 도입 물량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사할린-II 프로젝트는 사할린 대륙붕에서 LNG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규모만 200억달러에 달한다. 가스프롬이 지분 50%를 확보하고 있다.

가스공사는 2008년부터 사할린-II 프로젝트에서 연간 150만톤의 LNG를 도입해왔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신북방 정책을 추진하면서 그 일환으로 러시아산 LNG 도입 물량 확대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문 대통령은 작년 9월 러시아에서 열린 동방경제 포럼에서 가스를 협력 사업 중 하나로 제시했다.

이후 정부는 제13차 장기 천연가스 공급 계획을 마련해 러시아와 장기계약 물량을 확정하기로 했다.

정승일 가스공사 사장은 신북방 정책에 맞춰 러시아와의 협력 강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정 사장은 올 초 알렉세이 밀러 가스프롬 회장과의 회동해 협력 방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했으며 지난달 21일 문재인 대통령의 러시아 국빈 방문에도 동행했다.

가스공사는 가스프롬과 양국 가스관 연결 관련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러시아 노바텍과 기단 반도에서 추진 중인 북극 LNG-2 프로젝트도 협력한다.



한국가스공사 사옥.

한수원 차세대 인재양성 적극 나서

8월 3일까지 6주간 하계대학 개최

한국수력원자력이 2018년도 세계 원자력 차세대 인재 양성 하계대학을 개최한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세계 원자력계 주요 인사들을 초빙해 젊은 리더들에게 경험을 전수하는 2018년도 세계 원자력 차세대 인재 양성 하계대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계대학은 6월 26일부터 8월 3일까지 6주간 일정으로 부산 벡스코와 경주 현대호텔에서 진행된다.

세계 원자력 차세대 인재 양성 하계대학은 국제 원자력 인력 양성 분야의 대표

교육 프로그램이다. 2005년 미국 아이다호를 시작으로 해마다 개최되어 올해 14회째다.

올해는 국내 최대 발전회사인 한수원과 세계원자력협회(WNA) 산하 세계원자력대학(WNU)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번 하계대학에서는 세계원자력협회 사무총장인 아그네타 리징과 세계원전사업자협회 의장인 자크 레갈도 등을 비롯한 원자력계 주요 인사 8명과 15개국 40여 명이 참가해 세계 에너지 동향, 원자력 정책, 발전, 협력과 규제 분야 등 전반에 걸쳐 강연한다.

또한 전 세계 28개국에서 59명의 원자력계 젊은 리더들이 강연을 들으며 한국을 찾는다. 리더들은 최신 지식 습득은 물론 각국 주요 이슈 토론 및 다양한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통해 세계 원자력 산업의 방향을 이해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다음 달 16일부터는 새울원자력발전소,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KINGS), 한국원자력연구원, 한전원자력연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두산중공업 등 국내 주요 원자력 시설도 방문한다. 현장 방문을 통해 우리나라의 원자력산업계 발전 역량을 체험할 예정이다.

◀ 노백식 한전 해외사업본부장

www.도깨비골프.com

도깨비는 장타다 도깨비는 혁신이다

8각그립, 4쌍둥이 아이언 도깨비 DX111

국내 최초 8각그립(국제특허품) 아이언
• 기존 원형 그립의 단점을 보강하여 미끄러짐을 방지하고 임팩트 시 100% 힘을 전달한다.

#5 #6 #7 #8의 길이가 똑같은 4쌍둥이 아이언
• 5번 아이언을 8번처럼 잡고 편하게 칠 수 있다.
• 굴곡 심한 필드에서도 롱아이언이 부담스럽지 않다.

도깨비를 잡으면 자신감이 잡힙니다.

비거리 잡는 드라이버 도깨비 DX505

호쾌한 장타의 세계로 올라오십시오.

- 초정밀 티타늄 헤드페이스의 **초고반발력**
- 스윙 스폿이 확장된 505cc **대용량 헤드**
- 스윙 스피드를 증가시키는 **초경량 드라이버**
- 강력한 퍼포먼스를 구현하는 **초강력 샤프트**

도깨비를 잡으면 비거리가 잡힙니다.

도깨비를 잡으면 골프가 잡힙니다.

8각 그립

국내 최초 8각그립 (국제특허 획득)

아이언 풀세트 중 #5~#8번은 길이, 헤드 사이즈 동일

1899-9030